

# 디지털 역량 확대하는 지방은행 외부 협업 '공동대출'로 경쟁력 ↑

지역경제 악화·건전성 우려 증대  
5대 지방은행, 디지털 영업 주력  
인터넷은행·플랫폼과 협업 분주  
광주銀-토스뱅크, 함께대출 출시  
전북銀-카뱅 공동대출 상품 준비

지방은행들이 디지털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악화로 지방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판로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은 최근 외부 기관 및 플랫폼과의 연계 상품 출시, 모바일 앱 개선, 비대면 상품을 통한 신규 고객 유치 등 디지털 영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영업점 중심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대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전체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채권의 비중) 평균은 0.46%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0.1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은행의 전체 기업대출액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9% 수준이다.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지방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였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 취급한 전북은행을 제외한 4개 지방은행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34.5점이다. 1년 새 52.5점 높아진 수준으로, 같은 기간 5대 은행 취급 대출의 939.2점과 비슷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규 대출 감소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각 지방은행은 디지털 역량 확대를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섰다. 지방은행의 '디지털 역량' 강화 행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외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출시하는 '공동대출' 상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광주은행과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공동대출 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공동대출은 복수의 은행이 차주의 신용 및 대출 한도를 공동 평가하고, 대출금을 공동 출자하는 상품이다. 인터넷은행의 접근성과 지방은행의 대출 심사 노하우를 결합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전북은행은 카카오뱅크와의 공동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은행도 올해 출시를 목표로 케이뱅크와의 공동대출 상품 개발에 나섰다. 특히 부산은행은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 부문에서도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간편 송금·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인 토스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 전용 상품인 '첫 시작 루키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신용점수 대신 대안평가정보인 '토스스코어'를 이용해 차주의 신용을 평가하는 상품이다. 경남은행과 토스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전용 상품도 개발 중에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앱 개선, 비대면 전용 상품 개발 등 자체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새롭게 출범한 전국 단위 거점 점포를 통해 기업 대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개인 금융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비대면 상품 취급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에 힘쓰는 계획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 영업만으로는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은행이 다양한 영업 확대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지방은행의 영업 확대 전략에 긍정적인 만큼, 앞으로 이런 시도가 꾸준히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아파트.

/전지원 기자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2년9개월來 최고치

토허제 재지정 후 경매 투자수요 ↑  
평균 응찰자 10.6명... 3년만에 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7.5%로 전월(91.8%)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 낙찰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10.6명으로 전월(8.9명)보다 1.7명 늘었다. 2021년 2월(11.7명) 이후 약

3년 만의 최고치다. 응찰자 수 증가 역시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매 진행건수는 크게 줄었다. 3월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72건 진행돼 전월(253건)보다 32% 감소했다. 낙찰률도 41.9%로 전월(42.7%)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이 위원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거나 경매를 유예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경매 취소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98㎡는 지난달 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채권자가 직전 취하서를 제출해 경매가 취소됐다. 이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자 헐값에 처분하기보다 매각 방식을 바꾼 사례다.

/전지원 기자 jiw13@

## 지방금융3사, 공동AI거버넌스 수립 추진

1단계로 표준 가이드라인 검토 등  
안정성 우선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지방금융3사(BNK금융·iM금융·JB금융)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한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 AI 거버넌스'는 조직 내에서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수립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금융3사는 '금융그룹 AI 거버넌스 수립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AI 거버넌스 수립 ▲AI 사용, 활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규제 준수 검토 및 실행 전략 제시 ▲AI 리스크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 방안 수립 ▲AI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 최적화 ▲조직 내 AI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 5가지 핵심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로 금융그룹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과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각 그룹사별 AI 거버넌스 반영 및 시범 적용을 통해 AI 활용 전반에 걸친 윤리적,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방금융3사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AI 기술 활용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3사는 이번 공동 사업을 필두로 향후 정기적으로 디지털 및 IT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이슈 대응 및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건설사, 관세전쟁 여파 공사비 상승 우려

당장 국내 주택시장 영향 제한적  
고환율·수요위축에 장기적 악재

건설업계가 관세전쟁 전면전은 피했지만 자체 수급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57개국에 부과를 공언한 고율의 상호관세는 현지시각으로 9월 0시, 한국시간으로 같은날 오후 1시 발효된다.

일단 국내 주택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동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건설업은 주요 내수업종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풀(pool)에서 미국의 비중이 미미하고, 일부 원자재가 상승에도 원가 내 비중이 낮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고, 자금 조달 및 개발원가 상승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원·달러 환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급등은 건설시장에 수입물가를 자극해 자재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산업은 목재와 석제품 등을 제외하면 완제품의 수입 비중은 크지 않지만 건설자재 원재료의 경



미국의 상호관세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뉴시스

우 환율상승은 직간접적인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4로 전월 대비 0.01%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6% 올랐다. 2020년이 기준연도임을 감안하면 건설공사비는 최근 4년간 이미 30%가 넘게 오른 상황이다.

박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지속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둔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건설수요가 줄어들어 민간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침체가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물론 수출입 제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재 공급망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사업 환차익을 거론하지만 비용상승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해외건설 사이트는 초기 기본설계 및 입찰 구상 단계에서 설정된 공사금액 대비 예산이 크게 벗어날 경우 관세에 대해 향후 발주처와 비용 부담에 이어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 더더욱 미국 현지 생산 조달 제품이 아닐 경우 관세에 따른 공사 원가 상승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철강, 기계장비, 플랜트 주요 기자재 등 각국으로부터 최적의 경로와 가격 입찰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EP(설계·조달)단에서의 난이도 상승이 예상된다"며 "결국 꼼꼼한 설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銀 예금토큰으로 땡겨요 주문하세요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진행  
1만원 이상 주문시 할인쿠폰 제공

신한은행은 9일 배달앱 '땡겨요'에서 '예금토큰'으로 주문하는 결제 시스템을 오픈했다. 디지털화폐 테스트 참여 고객은 신한 SOL뱅크에서 발행한 '예금 토큰'을 비롯해 7개 참여은행의 모든 예금 토큰으로 배달앱 '땡겨요'에 입점한 21만개 가맹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다.

땡겨요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온라

인 가맹점 생활밀착 서비스인 배달 앱을 통해 결제수단으로서의 확장성을 점검한다. 또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땡겨요'에서 1만원 이상 배달 주문 결제 하면 ▲매 주문 건당 '땡겨요 2000 포인트', 누적 3회 이상 주문 시 ▲'땡겨요 30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